

# OpenDoors

07

2023

VOL.255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 북한선교현장

은신처에서 전해온 편지:  
'순교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 박해와 선교현장

북한(North Korea)

### 박해뉴스

전세계 / 스리랑카

### 현장스토리

아라비아 반도 : 나디아의 이야기

나이지리아 : 130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성경책이 전달되었습니다!

### Heart To Heart

2023년 어린이 박해지도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OpenDoors  
세계를 향한 사랑의 문을 열어주세요



## 지루한 듯해도, 오래된 일상은 힘이 있다

윤상덕 목사  
(일산교회 담임목사)

우리는 위기에 처음 한두 번은 반응하지만, 그 위기가 반복되면 더 이상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다. 일상이기 때문이다. 도쿄에서 제법 큰 지진을 여러 번 경험하며 참 많이 놀랐는데, 정작 그곳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으레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게 늘 그런 곳이다. 한 지역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젊은 아들들이 입대 한다며 목양실에 찾아와 기도를 받고, 군용 성경을 들고 간다. 입대하는 아들에게나, 아들을 보내는 부모님에게나, 그런 아들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내게나 분단은 현실이다. 분단이 현실이면 북한과의 대치 상황도 현실이고, 북한이 삼대세습독재정권의 땅인 것도 여전히 현실이다. 그리고 지하 교회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신앙 생활도 현실일 것이다.

최근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짬이 날 때마다 조금씩 보면서 든 한 가지 생각. ‘아,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겠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나라면 그 시대를 건디지 못했겠다’ 싶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한국 근대사에 대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드라마를 통해 눈으로 본 역사는 전혀 새로웠다. 그 시대를 살아냈던 조상들이 너무 가여웠다. 그 이야기를 큰딸아이와 나누다 보니, 자신은 아마도 친일을 했지 싶단다. 깜짝 놀랄 고백이지만,

그게 사실일지 모른다.

그리고 6월을 지났다. 70년 전의 분단일 뿐 아니라 이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북한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게 사실이고, 그것이 또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힘이라 생각한다. 이즈음 나의 간절한 바람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북한의 주석궁에도, 들판에도,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다.

목양실에는, 오두산전망대에서 사온 남한군 북한군 인형이 있다. 매일 여러 번 그 인형을 보며 기도한다. 문득 문득, 통일이 가능할까, 지하 교회 성도들은 언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까, 싶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출 수 없다.

흔히들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정치인들의 노력, 경제적 효과로 설명하려는 경우들이 많다. 다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인권을 말하며 정권을 얻은 정부는 북한 동포의 인권과 박해 현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현 정부 역시 별다른 뽐족한 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곳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자꾸 높아져만 간다.

성경 어디에서 출애굽이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진행되었다고 가르치며, 페르시아에서의 귀환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기준 삼았던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께는 분단의 휴전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힘이 있으시고, 북한과 남한의 경제 사정도 하루 아침에 바꾸어 버릴 수 있다. 애굽에서의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 바벨론 강변에서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행하셨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대로 여호와와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고토로 돌아왔다. 새로운 논리, 새로운 전략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에게 맡겨두자. 교회는 그저 교회의 길을 걷자. 독재자의 박해 아래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니 우리는 그저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고, 다니엘처럼 살아내며, 우리의 기도의 한켠에 북한의 마을과 고을들을, 동포들의 눈물을 담아야 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 지루한 듯해도, 오래된 일상은 힘이 있는 법이니.

##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은신처에서 전해온 편지: '순교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 06 박해와 선교현장

- 북한(North Korea)

### 13 박해뉴스

전세계 / 스리랑카

### 18 현장스토리

- 아라비아 반도 : 나디아의 이야기  
- 나이지리아 : 130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성경책이 전달되었습니다!

### 20 Heart to Heart

2023년 어린이 박해지도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 오픈도어윌클리(Open Doors Weekly)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2023년 07월호 | 통권 255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 SUPPORT

###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북한선교현장

## 은신처에서 전해온 편지: '순교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되는 위험과 코로나19 제한에도 불구하고 오픈도어는 계속해서 은신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내 북한 기독교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량, 의료지원, 목회 돌봄, 그리고 성경공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짧은 시리즈를 통해 3개의 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편인 '순교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입니다. 이 편지는 오래 동안 가난하게 살아온 한 북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 그녀는 현재 은신처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가 여러분의 은혜로운 지원을 통해 돕고 있는 이들 중 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한에서 저는 나약했지만, 지금은 강하고 건강해요. 저는 부모님, 자매 두 명, 그리고 형제 한 명과 함께 자랐어요. 저희는 넉넉한 생활을 하곤 했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고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생존하는 것이 어려웠고 저는 중국에서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지원하고 싶었어요.

하루는 식당을 방문했어요. 이 곳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을 접했죠. 몇몇 손님들이 눈을 감고 분명히 그곳에 있지 않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더니 또 다른

집단이 똑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듣고 저에게 사진 하나를 건넸어요. 몇몇 사람들, 태양, 그리고 병원의 십자가와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 사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이 사진을 주면서 그들은 또 다시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하는 거지?"

몇 개월 후에 저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조선족 여성이 일요일에 어떤 행사에 같이 가자고 초대를 해줬어요. 그녀는 저를 교회로 데려갔죠. 그녀는 먼저 상자에 돈을 조금 넣고 눈을 감고서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저 "이게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동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을 때 한 남자 분이 기타 연주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제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선명하게 기억하는 다른 한 가지 일이에요.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복음에 열려 있지 않았었죠. 저는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술도 많이 먹고 시기에, 다른 이들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방탄한 생활을 했어요. 그 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좋아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는 저희 부모님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이죠.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저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저

는 할 수 없이 부모님과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편찮으셨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속상했어요.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생각했어요. 그러지 못한 이유는 오로지 부모님과 아들 때문이었죠.

후에, 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아이 없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 있는 친구가 저를 한 선교사님에게 소개해줬어요. 그는 저를 성경 공부에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두려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종교가 허용되지 않고, 아는 것 만으로도 형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중국에 간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이 그들 중 한 명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성경 공부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제가 살면서 만난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죠. 제가 하루는 손가락으로 무릎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십자가가 있는 집을 절대로 방문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한 것이 부끄러워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여시고 믿게 하셨죠. 특별히 선생님이 저희에게 요한 복음 3장 16절을 읽어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어요! 저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다른 이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간음했어요.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찬양을 많이 배웠는데 이것은 제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힘이 되었어요. 그 중 한 곡은 '사명'이라는 곡이에요. 이 찬양은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죠.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셨고, 저는 그분을 따라 북한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주는 구원에 대해서 누가 외칠 수 있겠니? 내가 사랑한다고 누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므로 세상이 저를 미워할지라도 저는 북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를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곳 은신처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잠이 많았는데, 이제는 새벽 4시반에 일어나서 한 시간 반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 6시부터 7시까지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 벌써 성경을 17번 통독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예레미야를 다시 읽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돌아오렴, 돌아와...'라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강박한 북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바울과 저를 비교하곤 해요. 저는 그와 같이 살고 싶어요. 제가 이곳 은신처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저의 인생과 저의 몸은 하나님 것이예요. 늘 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거예요. 사나 죽으나,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만들어요. 저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제사의 전제 제물로 쏟아지고 싶어요. 나의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면, 되겠어요." 북한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재건될 때까지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의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기도해요.

저의 편지를 읽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3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1 위

## 북한 (North Korea)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북한에는 종교나 신앙의 자유가 없다. 정권은 모든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기독교인인 것이 적발되면 가족과 함께 정치범으로 노동수용소로 추방되거나 그 자리에서 처형당한다. 그러므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극비리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자들에 대한 숭배는 수년에 걸쳐 점점 더 강화되었으며 끊임없는 세뇌와 함께 '미신'과 종교에 대한 경고도 더 중요 졌다"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USCIRF, "Kimilsungism-Kimjongilism and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thought and conscience in North Korea", 2022년 7월 29일). 2020년에 제정된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8조에 언급된 금서에 성경을 포함시켜 기독교가 여전히 국가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북한 (North Korea)

## 국가 정보

지도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

인구 : 25,991,000 명

기독교인 수 :

400,000 명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불가지론

정부형태 : 일당 독재



##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비율 (%)
기독교	400,000 명	1.5
불가지론	14,869,170 명	57.2
무신론	3,933,747 명	15.1
기타	3,289,819 명	12.7

\* 기타는 중국 민속, 신흥 종교, 시크교, 강신술, 도교, 유교, 자이나교, 힌두, 조로아스터교를 포함한다.

1945년 독립 이후 공산주의 국가였던 북한은 집단적 지도부가 아니라 김일성 한 사람이 통치할 것이라는 것이 금방 분명해졌다. 김씨 가문 숭배인 김일성주의가 북한을 지배한다. 김일성은 1994년에 사망했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 권력 승계이후, 2011년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 김정은이 계승했다. 김정은은 의회, 정부, 군대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요직을 맡고 있다. 그는 북한이 신중한 대접을 받기 위해 로켓과 핵 기술을 발전시키며 세계에 존재감을 나타내 왔다. 탄도 및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김정은은 한국, 러시아, 중국 및 미국 대통령을 만나 외교 공세를 시작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5개월 동안 김정은을 다섯 차례 만

났다는 사실은 중국이 북한의 가장 가깝고 유일한 동맹국임을 보여준다. 북한 최고 지도자와 현직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이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또 한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결과는 미미했다.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삼자 마지막 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 북핵과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해제를 위한 회담 재개가 예고됐지만 아직 후속 회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수 개월 동안 북한 내 COVID-19 감염 사례를 부인했다. 2022년 5월 김정은은 마침내 COVID-19 대유행이 북한에 상륙했음을 인정했고(로이터통신, 2022년 5월 18일), 이것은 불특정의 "열병 감기" 정도로 보도됐다. 그는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의 의료 기관(전염병이 도래하기 전에도 이미 취약한 곳으로 잘 알려짐)을 지원했다.

심각한 식량 부족의 위험은 1990년대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갔던 대기근을 연상시키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그러나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 대부분이 북한을 떠난 지금은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1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의 긴밀한 국경 봉쇄로 인해 기아가 실제적 위험이 되고 있다. 이론상으로 여성과 소녀는 성 불평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강간, 인신매매, 성적 학대 및 가정 폭력은 불법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만연해 있다. 병역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있다.

김일성주체사상은 규정된 국가적 종교이다. 모든 북한 주민은 매주 자아비판 학습에 참석하고 100쪽 이상의 사상교육 자료를 암기해야 한다. 종교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다. 불교와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철학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면적으로만 행하면 되기 때문에 따르기가 더 쉽다. 기독교는 국가가 맞서 싸워야 할 위험한 외국 종교로 여겨진다. 기독교인과 그 후손은 '적대적' 계층으로 분류된다. 한국 전쟁(1950-1953)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난했고 수만 명이 살해되거나 투옥되거나 외딴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오늘날의 북한 기독교인들은 한국전쟁 이전의 기독교인 후손이거나 1990년대 북한의 기근 때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된 수만 명의 사람들 중 일부이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국제적 제재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제재 해제는 북한 외교의 핵심 목표였으며 중요한 경제 이니셔티브(해결책)는 이주노동자를 타

국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교육은 의무이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명율을 가진 나라들 중 하나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에게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설계된 상이한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비공식 민간 부문은 특히 대도시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2월 노동당 대회는 자유분방한 민간 부문을 통제하고 국가 통제를 (더욱) 회복하여 경제 정책의 중앙 집중화로 이어갈 것이라고 결정했다.

북한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성분이라는 사회분류체계를 발전시켰는데, 이 체계에 따라 모든 주민은 3개의 계층: 핵심(사회의 28%), 동요(45%), 적대(27%)계층으로 나뉜다. 기독교인과 그들의 후손들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 여성은 법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수만 명으로 추산되며 각 사람은 신중하게 선택되고 감독된다.

북한의 핵 능력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특히 이웃에 국경을 접한 중국과 국제적 긴장을 야기한다. 중국이 제재 규정 준수를 완화시키고 있다는 징후가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경제 제재에 동의했다. 북한 정보기관과 중국 공안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신원 파악 후 강제 송환을 당하는 탈북자들(주로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 탈북 난민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재중한국인과 조선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노동 수용소에 있다고 추정한다. 2020년 UN 보고서는 성폭력, 강제 탈의, 강간, 그리고 강제 낙태를 포함하여 이러한 수용소에서 여성들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를 강조했다. 기독교인 남성들 또한 노동 수용소 내에서 신체적 폭력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

## 지역별 상황

북한에는 고전적 의미의 종교적 자유 침해 집중 지역이 없다. 반란은 생각해볼 수조차 없으며 정권은 모든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수용소와 완전 통제 구역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김정은은 노동수용소 제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해받는 성도

### 국외로 추방된 기독교인 공동체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에 속하는 기독교인들은 한국전쟁(1950-1953) 이전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쟁에서 죽거나 남쪽으로 피난했지만, 북한에 남은 이들과 이들의 후손들(현재 3대 또는 4대)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출신성분이라는 사회 제도의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며 이들 자체적으로 개신교는 37계급, 천주교는 39계급이라는 두 개의 하위 분류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나 조부모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인에게 적용된다. 대부분은 잘못된 성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처벌로 외딴 고립된 마을로 추방되었다. 소수의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만이 그들의 신앙을 숨기고 지하 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연좌제 원칙으로 인해 이들 기독교인의 후손들은 극복할 수 없는 사회와 기타 장애물에 직면하고 의심을 받으며 감시당하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이들 개종자들은 공산주의자 또는 "김일성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 중 다수는 기근이 닥쳐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중국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던 1990년대에 기독교인이 된 북한 주민들이다.

(2000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었지만 그 수는 미미하다.) 그들은 북한으로 돌아온 후에도 새로 찾은 신앙에 충실했고 믿을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이후의 억압:

북한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개인 숭배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관습과 사회적 통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종교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인은 국가의 사회 계층 시스템인 성분에 따라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

### 독재 정치:

지도자의 신과 같은 지위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업적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도록 국가 선서를 수정했다. 2020년에 김정은은 여러 차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기리지 않았고, 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태양절에 그들의 '성지' 참관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권력을 얼마나 강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근원은 매우 밀접하게 함께 작동하여 거의 하나로 혼합된다. 이 두 근원의 주요 가해자는 정부 관료와 노동당이고 그 다음이 시민과 대가족이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되는 것도 김정은의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당국의 최고 목표는 국가와 지도자의 생존이다. 노동당은 김정은이 이전의 '선군'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한 이후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주민들은 이웃들에 의해 당국에 신고할 만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시 당하고 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세뇌당하고 두려움 또는 위협이 뒤섞여 종종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의 가족까지도 친척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 여성

수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 수감자들은 성폭행과 강간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다. 전체 탈북자의 약 80%가 여성이며, 중국으로 탈북 한 많은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 정보기관과 중국 공안의 공조가 강화돼 탈북자의 송환이 늘고 있다. 더욱이 2014년부터 여성의 병역이 의무화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종교적 행사를 반대해 통제된 환경으로 악명 높은 수준이다.

- 정부에 의한 투옥
- 인신매매
- 폭력 - 성적

### 남성

북한의 가부장제 사회는 주민 인구에 대한 국가적 감시가 특히 남성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성인 남성은 정부가 할당한 작업장에 속해야 한다. 그들은 늘 출근 확인을 해야 하며 사적인 이유로 일을 쉴 수 없다.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 드러나는 사람은 군대(남자는 10년 병역), 대학, 직장 등에서 최하위 직위로 보내지며 당원 자격도 박탈을 당한다. 그리고 이들 남성들도 노동 수용소에서 학대와 신체적 고문을 당한다.

- 교육에 의한 차별과 괴롭힘
- 일 / 직업 / 사업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 / 민병 징집 / 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신체적

## 북한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보고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3	1	98
2022	2	96
2021	1	94
2020	1	94
2019	1	94

북한은 2002년부터 월드와치리스트에서 계속 1위를 차지했는데 202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기독교 박해가 전례 없이 급증해 기록이 잠시 중단되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압박은 가장 심한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국가 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오랜 부인에 대한 반응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함께 기독교인들에 대한 체포와 가정교회에 대한 폐쇄는 더욱 늘어났다. 정부는 생각했던 것 보다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폭력 지수와 종합 지수는 각각 1.3점씩 증가했습니다.

## 보고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

보안 문제로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개인 생활

경찰과 정보원들은 예고 없이 집을 수색한다. 기독교 자료가 발견되면 국가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해 온 가족이 추방당하거나 투옥되거나 처형당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를 사용하여 승인되지 않은 매체에 접속하는 사람은 처벌된다. 기독교인들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오로지 밤에 이불 속에 숨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가족을 포함하여 정권의 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신고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교사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부모를 비난하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가 십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 가족 생활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풀면 투옥되거나 처형될 수 있다. 위에 개인 생활 부분에서 보았듯이 자녀와 신앙을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독교인들은 성경 이야기를 동화로 가장해 아이들과 나누려 한다. 일부 탈북자 난민들에 의하면 기독교인임이 발각된 사람의 비기독교인 배우자의 부모가 고위직일 경우 이들을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관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없앨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좌제 원칙에 따라서 온 가족이 심문을 받고 투옥되기 때문이다. 김일성주의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심지어는 핵물리학과 같은 과목의 박사 학위 과정에서 수업 내용의 30%가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기독교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가져온 반역적인 이데올로기로 묘사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반역자 그리고 간첩으로 보여지고 있다.

## 공동체 생활

북한은 인민반이라는 공산주의 이웃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주택 단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국에 보고된다. 경찰이나 첩보 기관에 의한 무작위 심문은 모든 주민에게 항시 있는 일상이다. 그 목적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 처형하거나 수용소 또는 외딴 산지로 추방하는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심문(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문)은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한다. 기독

교인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면밀히 감시되고 좋은 학교, 군대, 그리고 노동당 참여를 할 수 없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출퇴근길이나 등하교길에 동상에 고개를 숙여야 하고, 자아비판 시간이나 국가행사 같은 관례에 참여해야 한다.

## 국가 생활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헌법 68조와 함께 시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와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이나 국가의 기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노동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 법령이다. 이것들은 북한 정부와 사회의 통치 원칙이다. 창시자 김일성의 가르침에 입각하면 이 규칙들은 최고지도자(수령)와 조선로동당(조선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통일체의 확고한 충성심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국영 언론은 반기독교 콘텐츠를 방송하는데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사악한 배반자로 묘사되고 선교 활동은 ‘테러 행위’로 불리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임의적으로 체포되고 재판도 없이 처벌을 받는다. 법정 소송에 선 외국인 기독교인들도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장기간 임의 구금되고 있다.

## 교회 생활

관광객들에게 북한의 종교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 세운 평양의 공식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를 제외하고 북한에서 모든 교회 활동은 불법이다. 지하 교회 단체가 발각되어 기독교인들이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당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정보는 밝힐 수 없다. 정권은 특히 지도자를 찾아 처벌하고 관련된 연결망에 대해 심문하는데 관심이 있다.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개인용 성경책 한 권만 소지할 수 있고 북한에 두고 떠나지 못하도록 짐 검사를 한다. 기독교 자료의 반입 및 제작은 금지된다. 통일연구원의 2021년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처형이 더 빈번해지고 있다. 성경을 배포하는 행위는 소지하는 행위 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날 수 없기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에서 다른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북한은 아래의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4.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북한은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박치는 대로 처형을 당하고 있다. (ICCPR 6조)
- 기독교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추방당해 고문을 받고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ICCPR 7조, 8조)
- 북한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고 국가에 의해 통제를 당하고 있다. (ICCPR 17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갖거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ICCPR 18조)
- 기독교인들은 모이거나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ICCPR 21조)
- 기독교인들은 “적”으로 분류되고 신앙을 이유로 차별당하고 있다. (ICCPR 26조)

##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북한 지도부에 대한 숭배로 종교에 대한 여지는 없지만 불교와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종교는 아시아의 문화적 인식에 속하며 조용히 따를 수 있다.

‘미신 활동’(점술로 해석됨)은 금지된다. 하지만 비정부기구(NGOs)들에 의하면 이것이 결혼을 준비하기 전이나 사업 거래를 진행하기 전과 같은 때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룬궁 운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는 파룬궁 추종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 북한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의 목표는 항상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견고하게'(계 3:2)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특히 북한 교회의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진다. 우리의 지지가 없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굶어 죽어갈 것이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오픈도어의 중국 네트워크를 통해 박해받는 북한 성도들에게 긴급구호품(식량, 의약품, 의류 등)을 공급한다.
- 라디오 방송을 통한 훈련을 제공한다.
- 중국에 있는 북한 성도들(북한으로 종종 여행함)에게 숙소, 훈련, 그리고 훈련 자료를 제공한다.



#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에 직면하는 상위 10개국

TOP 10 COUNTRIES  
WHERE CHRISTIANS  
FACE EXTREME PERSECUTION

OPEN DOORS WORLD WATCH LIST 2023



## 전세계\_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위험한 10개국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의 완전한 범위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기독교 박해지수) 데이터에 의하면, 3억 6천만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높은 강도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라온 모든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며 그중 높은 순위에 위치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일의 도전입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압박, 차별, 잔혹함, 그리고 충격적인 폭력의 행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10개의 나라들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힘든 곳들입니다.

### 1. 북한

북한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에 무참히 적대적인 곳입니다. 성도들은 정부당국에 발각되면 정치범들과 같이 끔찍한 환경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 또한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유가

채널추가하시고 매주 전세계의 기독교  
박해뉴스를 받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거나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만나는 사람들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극비리에 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된 '반종사상문화배격법'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거나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극심한 박해를 받는 이유는 기독교가 야만적인 정권의 독재적인 이데올로기와 통치에 대한 분명한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지도자들과 사회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2. 소말리아

소말리아는 대부분이 무슬림인 국가이고 사회는 모든 소말리아인들이 무슬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와 마드라사(이슬람교 교육기관)의 이맘(이슬람 예배 인도자)들은 공개적으로 기독교,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지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알샤바브(al-Shabaab)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는 반복적으로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을 근절하고

자 하는 욕구를 나타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주요표적으로 간주되고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가족과 씨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씨족 지도자들은 개종자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개종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들조차 공동체의 어른들과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생활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소수의 성도들은 비밀리에 만나야 합니다. 이슬람 무장조직들이 기독교인,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 3. 예멘

예멘의 엄격한 이슬람법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존재로 이곳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극심하게 위험합니다. 인구는 압도적으로 무슬림이며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멘은 부족주의가 강하고 부족법은 부족의 구성원들이 떠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멘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 씨족, 그리고 부족에 의해 배척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알카에다(al-Qaeda)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은 이른바 “배교자들”이 이슬람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성도들 대부분은 자신의 신앙을 비밀리에 지켜갑니다. 이들은 이웃들이 현지 당국에 자신들을 고발할까 커져가는 두려움에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기독교 상징물을 내보이면 즉시 투옥, 신체적 학대,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멘인들은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 긴급 구호는 대부분 독실한 무슬림 이외의 모든 이들을 차별하기로 알려진 현지의 무슬림과 모스크에 의해 배부되기 때문에 예멘의 기독교인들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 4.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는 20년 동안 오로지 세개의 공식 기독교 교파(동방 정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루터교회)만을 인

정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이 교회들을 자세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정부의 방위군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잡아 내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수백건의 습격을 감행했습니다. 약 천명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혐의 없이 에리트레아 감옥에 무기한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정도의 박해와 폭력은 일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실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리트레아의 기독교인들이 큰 용기와 기쁨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체포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남성, 여성, 그리고 14세 정도의 아이들은 티그라이 전쟁에서 싸우도록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복무는 정해진 기한이 없고 에리트레아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수감자들은 집 대신 군대로 풀려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5. 리비아

리비아는 사실상 현지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거쳐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극심한 폭력을 마주하는 무법 상태의 땅입니다. 법과 질서를 유지시킬 중앙 정부가 없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과 조직범죄 집단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납치하고 일부 성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해 기독교인이 된 리비아인은 신앙을 버리도록 가족과 더 광범위한 지역 사회로부터 극심한 압박과 학대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6.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폭력적인 나라입니다. 2015년 이래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공격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모든 나이지리아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의 증가를 정부는 막지 못했습니다. 폭력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만연해 있으며 이곳에서 보코하람,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ISWAP), 풀라니와 같은 무장단체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살인, 신체적 피해, 납치, 그리고 성폭력을 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땅과 생계수단을 박탈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국내 실향민 또는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 샤리아(이슬람 법)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2등 시민으로서 차별과 배제를 마주합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족들에게 거부당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압박을 받으며 자주 신체적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 7.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2등 시민으로 간주되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마주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권위자들에 의해 낮고 저분하고 하급으로 취급되는 직업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이들은 적절한 정치적 대의권이 부족하고 지난해에 교회에 대한 큰 공격들은 없었지만 개개인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파키스탄의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은 종교적 소수집단(무슬림 소수집단 포함)을 표적으로 삼지만 특히 기독교인 소수집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신성모독 혐의의 4분의 1은 인구의 1.8% 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적 소수집단의 소녀들의 납치, 학대, 그리고 이슬람교로의 강제 개종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8. 이란

이란은 갈수록 더 엄격해지는 이슬람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가정교회들을 이슬람을 비롯해 자신들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서부 국가들의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해 기독교인이 되면 이들은 비밀 가정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시, 괴롭힘, 체포, 그리고 학대당할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게도 어설프게 정의된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범죄”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학대를 수반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란인 기독교인들은 교

육을 거부당할 수 있고 직업을 잃거나 복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란 법은 여성들에게 권리를 거의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상황은 더 위태롭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이 발각되면 폭력적인 처벌을 받거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아이들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 9. 아프가니스탄

2021년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더 지하로 내몰리거나 나라에서 완전히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많은 (상당수의) 가정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날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1년이 더 지난 지금, 그들이 자유를 승인하기로 한 모든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발각되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무장단체들에 의해 시행된 엄격한 형태의 사회는 일탈의 여지를 두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대부분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숨겨야 합니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것은 지배적인 이슬람 법에 따라 수치로 여겨지고 사형에 처해져야 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개종자들은 신앙이 발각되면 엄청난 폭력적인 결과를 마주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이들을 이와 같이 박해합니다.

## 10. 수단

수단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계속되는 불안 가운데서 더 악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압달라 함독(Aballah Hamdok) 총리의 사임은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고 수단이 다시 전직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의 독재 정권 시대로 돌아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수도인 카르툼 밖의 지역에서 더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특히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은 여전히 공동체와 가족에 의한 극심한 박해에 취약합니다. 개종자들은 성폭력, 가정폭력을 직면할 수 있고 투옥 및 폭력에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1. 전세계 국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기억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2. 이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위험한 10개국의 박해와 선교현장 정보는 홈페이지의 '기독교 박해 - 월드 와치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오픈도어워클리'를 통해 2023년 월드와치 리스트(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50개국의 박해와 선교현장 정보 및 각종 기독교 박해 소식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주시고 매주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려했다. “마을에는 열 여섯 기독교 가정들이 있어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요?” 경찰이 그들이 안전할 것을 확인해주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경고한 대로 얼마 후에 불교도 무리를 앞세운 마을 주민들은 추도 예배를 저지하기 위해 나타났다. 하지만 목사가 나타나지 않자 성난 무리는 잠시 후 해산했다. 씨반카 목사는 집에 도착해서 성도들에게 화상 통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추도 예배를 진행했다.

## 스리랑카\_ 기독교 가정의 추도 예배가 불교도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다

2023년 5월말, 스리랑카의 남부 주에 있는 마을에서 한 기독교 가정은 어린 아들을 위한 추도 예배를 준비했다. 아이는 2년전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고, 그의 부모와 친척들은 매년 이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추도 예배 시작 불과 몇 시간 전, 이들은 현지 경찰로부터 마을 주민들과 불교도 무리가 예배를 공격할 계획이라는 예상 밖의 정보를 전달받았다. 해당 가정교회의 목사는 교회로 가는 길에 연락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은 씨반카(가명) 목사가 마을로 오지 않도록 만류했고 목사는 마침내 승낙했지만 마을에 있는 기독교 가정들의 안전을

그로부터 일 주일 뒤에 목사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에게 나눴다. “마을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집은 마을의 다른 한 쪽 끝에 있어요. 저희는 그 집에 가기 위해서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걸어서 마을을 지나야 되어요. 갈 수 있지만 다시 마을을 지나서 빠져나오는 길에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죠.” 스리랑카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추도하는 것은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밀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추도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 마을의 주민들이 그 곳에서의 기독교 추도 예배를 반대했을 때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단지 화상 통화였지만 목사가 추도 예배를 추진한 것은 중요했다. 일주일 후 주일에 성난 무리는 다시 성도들이 모인 집에 나타나서 예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마을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동요하게 남겨



두었다. 이들은 불교도가 대다수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일 뿐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신타라가 지배적인 마을에서 살아가는 타밀 소수집단이다. 이들은 여러 방면에서 수적으로 열세했다.

이 가정들이 인근 차원(tea estate) 농장 노동자라는 사실은 이들을 박해 가운데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스리랑카에서 농장 노동자들은 가장 소외된 공동체들 중에 있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은 흔히 땅을 소유하거나 집 지을 자유를 거부당하고 차원의 비좁은 막사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당한다. 자녀들도 적령기에 이르면 차원에서 일을 시작한다. 이 공동체들은 19세기 영국이 남인도에서 데려온 농장 노동자들의 후손들이다. 이들은 대대로 농장 노동자들이었으며 자녀들도 그들을 따라 똑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쉽게 떠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이것이 정부가 마을에 집을 제공해준 것이 가정들에게 큰 축복인 이유이다. 다시 쫓겨난다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차원으로 돌아가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무시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씨반카 목사는 걱정하며 이렇게 나눴다. “저는 한동안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정들을 세 개의 가정교회로 나누고 인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리하여 성도들은 목사 없이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으며 씨반카 목사는 전화를 통해 그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들 중 모두가 전화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와 얘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들은 번갈아 가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저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기도해주세요

1. 이 마을에 있는 열 여섯 기독교 가정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마을 주민들이 일부 젊은 기독교 남성들을 그들과의 싸움에 연루되도록 도발했습니다. 이 시간을 뚫고 길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더 강화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 마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4. 이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위협에 맞서 기도해주세요. 이는 차원 막사로 돌아가는 것 외에 갈 곳 없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현장스토리

### 아라비아 반도\_ 나디아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갈망했던 나디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주시기까지 그분을 찾아가는 여정을 나섰습니다. “주님은 제가 늘 진리를 알기를 원했던 마음의 갈망을 빛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그녀를 가장 낮은 곳에서 구해 주셨지만, 여전히 나디아는 성도로서 기독교가 광범위하게 탄압을 받고 성도들이 박해 받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디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통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다른 이들을 이끌도록 준비시키고 도우셨는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사막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발견한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디아는 보다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은사를 더욱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일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 대담해졌고 자신의 사회 매체(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들과 정보를 올리면서(이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용감한 행동이다)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통한 것입니다.

나디아는 가정 내에서도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딸의 필요를 다룰 수 있는 알맞은 의사를 보내주신 것을 통

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고 아들과 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서 분리되었고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가한 제한으로 인해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지금, 나디아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매가 자녀들과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관계가 잘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디아가 갈급해 하는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계속해서 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녀와 그녀의 은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극심한 지역인 나이지리아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 6위)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두드러진 소수인 북부에서는 성경을 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북부 나이지리아에 있는 젊은 기독교인들의 제자도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130권 넘는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자기만의 성경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날마다 소외와 폭력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소수이지만, 어린 형제들과 자매들은 박해의 한 가운데서 회복력을 발휘했습니다. 저희 현지 파트너들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열매로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자매, 형제들은 자신들만의 성경책을 갖게 되어 매우 신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책을 전달받은 도르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성경책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저에게 이 성경은 인생의 전투 가운데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세워야 될 기초이며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에 저의 영적인 여정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을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20대인 매튜는 성경책을 받고 신이 났습니다. “저희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 쓰는 성경책 한 권 밖에 없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개인 시간에 읽을 수 없어요. 제 성

경책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은 제 인생을 많이 도와주고 변화시켜 줄 거예요. 특히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제 인생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것을 믿어요.” 그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희 현장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끝으로 매튜는 오픈도어가 성경을 선물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사역과 오픈도어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성장하고 더 많은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문들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요.”

마찬가지로 도르가도 여러분들과 같이 오픈도어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이 저와 지역 사회의 다른 이들에게 닿도록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성경이 없는 이들과 나누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할 거예요.” 자신만의 성경을 갖게 된 130명의 기독교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에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이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지속적인 중보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rise Africa Campaign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1-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본 캠페인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함께 연합하며 폭력적인 박해에 함께 맞서기 위한 동역입니다. 저희가 동역하지 않으면 이곳의 교회들은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앞으로 4년 동안 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세계 교회들이 이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 함께 일어서기를 기대합니다. 깨어 간절히 기도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현재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오픈도어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만연해 있는 폭력에 맞서기 위해 캠페인활동을 하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4년 동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성도들 400만명을 접촉하고 이들에게 영적,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 지원

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에 함께 맞서주세요.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지역의 폭력 상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Boko Haram), 이슬람국가(IS), 알샤바브(al-Shabaab)와 같은 극도의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그리고 말리와 같은 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란과 강도 가운데서도 작전을 펼치며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간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170**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1,500** 기독교인들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대략적 추산

**2,714** 기독교인들은 납치를 당했습니다

###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는 번영하지 않았나요?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곳 보다 아프리카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 들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전혀 없는 맹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많은 이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용기와 회복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홀로 견디게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 이 폭력적인 박해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영적 충격: 박해로 인해 보통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거나 심지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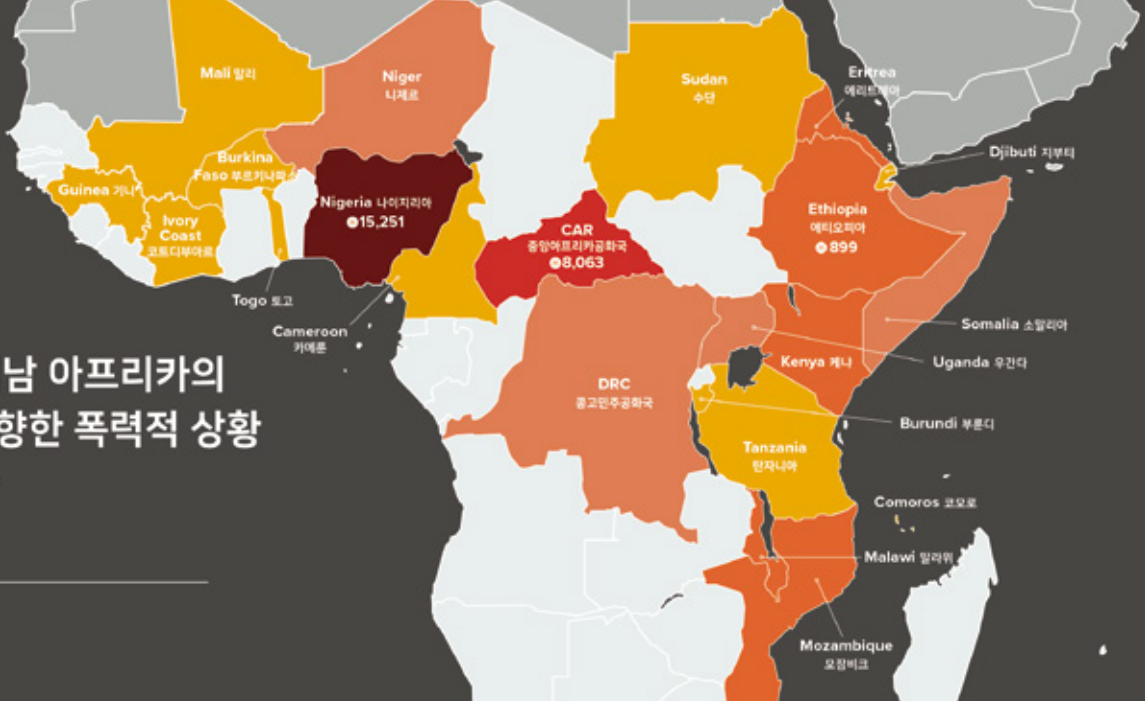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적 상황



●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의 수

2022년도 확인된 현장 사건 데이터



위험한 사상들로 과격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생존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정서적 충격:** 폭력적인 박해의 피해자들은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수의 기회를 노려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우울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는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리적 충격:**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들의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사회경제적 충격:** 극단주의자들은 생계를 훔치고 납치로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고 집을 망가뜨려 기독교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교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 오픈도어가 본 캠페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를 당한 모든 가족들을 영적,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교회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사태에 대해서 깨어 있고, 연합하고,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에 대해 충실하고 계속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더 연합하고 기독교인에게 행해지는 극심한 폭력과 그 영향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문제를 다루는데 더 충실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법률전문가들과 정부 관리들을 잘 갖추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폭력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오픈도어는 무슨 사역을 하나요?

오픈도어는 1990년대 초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지지해왔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2022년에는 500,000명에게 다가갔고 성경 훈련, 사회경제적 지원, 트라우마 치료, 그리고 교육/생계 훈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의 막대한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현장 사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확장의 일환으로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을 중심으로 사할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정책 입안자들과 의사결정자들에게 발표할 계획입니다.

# ARISE AFRICA CAMPAIGN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동역자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주시고 연합하여 폭력적인 박해에 함께 맞서 주세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선물

- 25,000원으로 박해 받는 가정의 젊은이들 4명에게 한 달치 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을 선물합니다
- 60,000원으로 극심한 폭력을 경험한 3명의 기독교인들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통한 치유와 소망을 선물합니다
- 160,000원으로 박해로 인해 실항민이 된 4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의약품,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이외 긴급 구호를 선물합니다
- 270,000원으로 박해 받는 가정의 젊은이들 4명에게 일 년치 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을 선물합니다

아프리카 후원 신청은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후원하기 - CMS 아프리카' 또는 대표번호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QR코드를 찍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 02-596-3171

## 오픈도어위클리

## OpenDoors WEEKLY

4월부터 모바일 주간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국가 상위 50개국에 대한 정보, 박해뉴스, 현장스토리, 그리고 영상자료를 담은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고  
오픈도어 주간지를 받아보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3.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4.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 2023년 어린이 박해지도와 어린이 및 청소년 세계 기도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 2023년 어린이  
박해지도 신청하기



• 세계 기도 투어  
프로그램 신청하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1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